

입주민들 “확성기·합성 소리 상상 초월...잠도 설치요”

일각에선 “공공 체육시설물 고유 기능 제한해선 안돼”

챔피언스 필드 인근 아파트 입주주민들 광주시·KIA구단 상대 집단소송 준비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인근에 사는 한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소송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선다.

해당 아파트 입주주민들은 그간 야구장에서 나는 확성기 등 소음에 노출돼 수면 방해 등 피해를 보는 만큼 광주시와 KIA 구단이 입주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등야구장 시절에 이 아파트 입주주민들이 입주했고 당시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입주주민들의 입장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문화활동이 위축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시 북구 A아파트 입주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 아파트 일부 입주주민들은 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입주민들은 오는 31일까지 입주민 동의서를 받고 해당 입주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정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나선 이유는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사용 이후 야구장에서 나는 응원단 확성기와 관람객 합성 등에 노출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입주민들이 지난 5월 29일(금) 북구 환경과에 의뢰해 5분간(오후 6시43분~48분) A아파트 10×동 ××호에서 야구장 확성기 소음기준을 측정할 결과, 측정소음도는 기준치 60dB를 3.2dB를 초과한 63.2dB였다.

주말 또는 휴일에 만원관중이 들어오면 소음측정도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

는 게 입주주민들의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또 소음 피해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에 대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야구장에 경기가 있는 날이면 외부차량에 의해 해당 아파트에서 주차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주민들의 이 같은 집단소송 준비와 관련, 일각에선 공공체육시설물 고유의 기능인 관람객들의 놀이문화가 자칫

방해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입주민들이 무등야구장 시절에 입주했고 소음피해도 있을 줄 알면서도 입주한 점을 감안하면 공적인 측면에서 입주주민들이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입주주민들은 새 야구장이 들어선 이후 해당 아파트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졌고 야구장 음향시설도 향상되면서

소음피해가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입장이다. A아파트 입주주민 B씨는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TV 음향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하다. (휴일이) 안타나 홈런을 치면 확성기 소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오죽했으면 소송을 준비 중이겠느냐”라고 말했다. A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시나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한 인근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되는 등 향후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충행기자 galee@kwangju.co.kr



부채만들기 봉사활동

28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여름방학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고교 학생들이 강사의 지도 아래 부채를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 자신들이 만든 부채를 운암1동 복지관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28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여름방학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고교 학생들이 강사의 지도 아래 부채를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 자신들이 만든 부채를 운암1동 복지관과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앞바다 폐유유출 선박 기관사 긴급체포

박람회장 내 자갈마당 등 오염

여수박람회장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용의 선박 기관사가 긴급체포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박람회장 인근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인천 선적 1500t급 화물제품 운반선 U호 1등 기관사 정모(6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6일 새벽 5시 40분께 여수 신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기관사 폐유 2t 가량을 유출해 박람회장 내 자갈마당(몽돌해변), 여객선부두 등을 오염시킨 혐의

이다.

해경은 여수항만 VTS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입·출항 선박과 오동도 인근에 정박중인 선박들에 대한 시료 분석을 거쳐 용의 선박을 압축한 뒤 기관사를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해경은 사고 당시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정씨에 대해 주박, 정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와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해경은 아울러 선사측의 묵인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영아 살해 나주로 보낸 3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매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35)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이씨가 갓 태어난 아기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사체를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갓 태어난 아기 입과 코를 수 차례에 걸쳐

쳐 막을 경우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판단,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시 광진구 주택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이 시신을 방치하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동구체육관에서 태매로 나주에 사는 어머니(60)에게 보낸 혐의로 적용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중흥건설 뇌물수수 관련 광양만청 전 직원 징역 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박재형 판사는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뇌물수수) 기소된 광양만경경제자유구역청 전 공무원 박모(6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벌금 2620만원과 함께 추징금 1308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뇌물수수 이후 유리한 업무 처리나 특혜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까지 광양만경경제자유구역청의 순천 신대배후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흥건설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130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남자 행세 20대 女, 동거녀에 들통나자 투신 숨쳐

남자 행세를 해온 20대 여성이 동거녀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오전 7시 40분께 여수시 학동 A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여·23)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새벽 1시경 함께 살던 B씨(여·26)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점, 아파트 5층 에어컨 실외기 인근에서 발자국과 빈 소주병 등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강제 퇴거 조치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개월여 전 경기도에서 여수를 찾았다가 술집에서 만난 B씨와 한 달 가량 동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동거녀와의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B씨에게 남

자 행세를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B씨도 A씨가 이름 뿐 아니라 짧은 머리에 굵은 목소리 등을 써 여성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인 사실을 알고 결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새벽 자신의 집을 찾아가다가 B씨 집을 찾아가다가 말다툼 끝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광산 주차타워 공사장 추락사고

광주고용노동청, 작업중지 명령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망사고가 난 광주의 모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한 주차타워 공사장에서 벽돌 쌓기 작업을 준비하던 A씨(45)가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노동청은 사망사고가 난 이 공사 현장에 추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매시장서 마늘 훔친 50대 “훔친마늘 도난 당했다” 횡설수설



○--광주도매시장 등지에서 값싼 마늘을 몰래 훔쳐 판 50대 남성

이 철장형.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채모(55)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55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도매시장 김모(49)씨의 청과도매상에서 마늘 600kg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

가 650만 원 상당의 마늘 800kg을 훔친 혐의.

○--채씨는 무더운 날씨 탓에 마늘값(10kg 한 방망 도매가 기준 9만~12만 원)이 오른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일부는 식당에 돈을 받고 팔았지만 상당수는 누군가에게 도난당했다”며 횡설수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100평 / 즉시입주가능)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용가도로 이면코너

- 평수 100평 (5층전체사용)
- 현 학원 운영중

**보 2천만
월 130만**

시설 완비
에어컨 2대 내부갈끔(시비약간있음)

급매 / 부동산종합 학원 매매

경매학원 매매
즉시운영가능
월수익 3,0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 상가건물 매매
(나주시 삼영동)

나주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토205평, 건135평)

1층6칸(올임대), 2층(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임직무물 7층사무실 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억5천	⑤ 상무지구 정연오씨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수원동 수원지구 4층중 3층 88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7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스(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스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 15평 (상기밀원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영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2천5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법원경매 (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구분상가)

- 1.서구 치평동 (토44,77㎡, 건257,71㎡)감정가 6억1천~최저가 3억4천
- 2.광산구 쌍암동(토99㎡, 건233평)감정가 2억5천~최저가 1억1천
- 3.동구 금동(토19㎡, 건149평)감정가 5억1천~최저가 1억2천
- 4.동구 금동(토18㎡, 건134평)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4천
- 5.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42㎡, 건18,6평)감정가 2억9천~최저가 1억1천7백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 1.동구 개림동(토59㎡, 건140평)감정가 4억2천~최저가 3억
- 2.북구 오치동(토54㎡, 건43평)감정가 1억9천~최저가 1억6백
- 3.북구 두암동(토42㎡, 건56평)감정가 1억5천~최저가 1억5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1.북구 운암동 (토66㎡, 건193평)감정가 7억2천~최저가 5억
- 2.광양시 중동(토232㎡, 건991평)감정가 26억7천~최저가 18억7천
- 3.광산구 남산동(토258㎡, 건150평)감정가 4억8천~최저가 3억5천
- 4.서구쌍촌동(170㎡, 건97평)감정가 4억~최저가 2억8천
- 5.북구 중흥동 (12㎡, 530평)감정가 13억7천~최저가 7억7천
- 6.동구 수기동 (토130㎡, 건320평)감정가 1억7천~최저가 7억5천

모텔/주유소

- 1.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357㎡, 건680평)감정가 27억~최저가 19억
- 2.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 (토154㎡, 건419평)감정가 15억~최저가 10억5천
- 3.광산구 월계동 (숙박시설)토460㎡, 건604평)감정가 34억5천~24억2천
- 4.북구 중흥동 (숙박시설)토90㎡, 건373평)감정가 11억~4억9천

공장

- 1.전남 장성 북이면도 2825평, 건614평) 감정가 41억 ~최저가 11억9천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추천 특수물건

- 1.동구 수기동(근린시설) 토130㎡, 건319㎡ 1층, 청고, 숙박, 2층~3층 소매점, 4~5층, 사무실 감정가 10억7천 최저가 7억5천
- 2.북구 운암동(근린시설) 토67㎡, 건64㎡ 지하~5층 점포 및 사무실 왕복 6차선도로점 주유소 옆 감정가 7억4백 최저가 5억2백
- 3.전남 평양시중동(근린시설) 토232㎡, 건991㎡ 도로전, 개발추진, 투자적합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5억

010-6670-98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원스톱강의

062-382-5500
010-6832-9700